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에스토니아
	대학명	탈린대학교
프로그램	■ 정규 □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swisscare 로 선택했고 비자는 D- visa 로 에스토니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서울역에 위치해있고, 비자발급 비용은 100 유로이고, 신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나왔던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으니 꼼꼼히 챙겨가야합니다. 현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야하고, 비자 나오기 전까지 여권을 대사관에 맡겨야 합니다.

항공권은 폴란드 LOT 항공으로 경유 2 회(부다페스트, 바르샤바)에 편도 80 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탈린은 직항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한번은 경유해야 합니다. 헬싱키에서 경유하는 핀에어를 이용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LOT 항공을 선택했습니다. 국제학생증을 만들어 키세스사이트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위탁수화물(23kg)을 무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21 인치와 28 인치 총 두개로 짐을 꾸렸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교환학생 준비물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의류는 압축팩을 이용하여 부피를 줄였습니다. 준비해오면 좋은 것들로는 전기장판, 미니 밥솥, 각종 한식 양념들, 상비약, 보조배터리, 롱패딩, 기초 화장품 정도 있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정수기 필터처럼 부피가 큰 짐들은 현지에서 구매했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에스토니아 현지인들은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에스토니아는 과거 러시아에 식민 지배를 당해 러시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아직도 에스토니아인 중 상당수는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에스토니아어, 러시아어, 영어 총 세 종류로 있습니다. 교환학생 온 친구들 중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한 국가이지만 북유럽과도 가까워 발트 3국과 북유럽 문화가 섞여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친절합니다.

에스토니아 물가는 발트 3국과 비교하면 비싸고,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외식 물가는 한국에 비해 비쌉니다.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장을 봐서 기숙사 주방에서 요리해먹으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저는 유럽에 있는 영어권 국가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에스토니아를 발견하고, 탈린의 올드타운을 본 후 꼭 가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현지인들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 영어를 배우기 좋은 환경이고, 학교가 수도에 위치해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미리 bolt 택시 어플을 다운받아 가면 편하게 앱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만 짐이 많아서 택시를 이용했고 주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택시로는 10분 정도, 버스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파견 이후 OT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었습니다. OIS 라는 사이트에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BFM only 라고 되어있는 수업을 꼭 듣고 싶다면,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면 bfm이 아닌 학생도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Bfm 수업 3 개, 전공 과목 1 개, 온라인 수업 1 개를 수강하였습니다. 탈린대학교는 bfm 이라고 미디어 관련 학과가 유명합니다. film language 과목은 직접 영화를 연출하고 제작해볼수 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 영화를 감상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Video performance media art 는 ikumumu 라는 탈린대학교 예술 전공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유럽에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인지라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기말 공연을 위해 팀플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열정적이시며 퍼포먼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야하는 강의입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웨어룸 등)

기숙사는 약 200 유로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8 명이 함께 사는 플랫이 대부분인데 저는 특이하게 4 명이 함께 사는 플랫에 살았습니다. 2인 1실로 방 두개에 주방만 함께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플랫에 모여 함께 자기 나라 음식을 소개하고 요리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수 있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ESN 이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견 직후 2 주 동안은 ESN 이 주관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보드게임, 언어교환 등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기 좋은 기회입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특이하게도 특정 기간에만 수업을 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9.10 월에만 혹은 11.12 월에만 혹은 격주로 수업을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원하는 기간에 열리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일정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겹친다면 일부 과목의 시험을 늦추어도 됩니다.

에스토니아는 11 월부터 기온이 꽤 낮아지고 바닷가 근처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날씨가 안좋아서 해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해가 있어도 3-4 시쯤 빨리 집니다. 비타민-D 를 꾸준히 챙겨먹고 건강을 잘 챙기는게 좋습니다.

수업과 약속이 없는 날에는 학교 내에 있는 헬스장과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헬스장은 작지만 필요한 기구는 거의 다 있고, 한달에 20 유로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탈린의 겨울은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운동하기는 어려워 헬스장에 다녔습니다. 도서관은 아주 크지 않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건물들을 보며 개인공부하기 괜찮은 장소입니다.

처음에 유럽음식이 입에 안맞아서 힘들었습니다. 유럽 음식은 대체로 짜고 느끼한 음식이 많습니다. 현지 뿐만 아니라 여행할 때도 한식을 요리해 먹었습니다. 한식을 좋아한다면 고추장, 불럭국, 코인 옥수 등 한식을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하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심은 super 유심이 가장 좋습니다. 1 유로로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그때그때 필요한만큼 데이터를 충전하여 쓰면 됩니다. 저는 한국 번호는 정지해놓고 현지에서 유심을 이용했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유럽은 저가항공이 많아 여행다니기 좋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중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라트비아, 폴란드 총 12 개국을 여행하였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이 가는 가까운 여행지로는 페리로 헬싱키(핀란드) 당일치기 여행, 버스로 발트 3 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비행기로 1 시간 스톡홀름(스웨덴) 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을 많이 여행다녔고, **Intermediate week** 이라고 중간에 일주일 방학때 여행하면 좋습니다. 모든 여행은 저가항공인 **ryanair** 을 이용하여 다녔습니다. ESN 학생할인을 통해 수화물 추가를 4 회 무료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혼자, 교환학생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지에 따라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과 여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혼자 여행한다면 치안이 괜찮은 국가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근교를 여행할 예정이라면 날씨가 좋은 9 월에 에스토니아 근교 여행은 모두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 인생에서 한번 뿐인 교환학생 생활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도인 탈린의 올드타운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탈린은 유럽의 수도 중 가장 안전한 도시로 깨끗하고 치안이 좋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도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이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학기 동안 해외에 지내면서 외롭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지금 탈린에서 5 개월을 지내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세계 곳곳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